올 하반기 본격개통
한국통신, 항공기 위성전화

항공위성통신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동.서지역 상공의 인마새트(국제위성이동통신기구) 위성 4개와 항공기지구국(AES) 및 육상지구국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비행중인 항공기와 지상간에 전화, 팩스, 데이터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범세계적 항공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스카이폰'과 '새털라이트 에어컴' 등의 연합체에 맞서 외국의 7개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스카이웨이' 협의체를 구성, 3월 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협의체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스카이웨이 연합체를 구성한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을 비롯해 미 컴새트, 타이 CAT, 인도네시아 인도새트, 필리핀 PLDT, 이탈리아 TI(텔레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TM(텔레콤 말레이시아), 대만 ITDC등이다.

그동안은 자체 육상지구국이 없어 영국-노르웨이-싱가포르등 3개국 통신사업자간의 연합체인 '스카이폰'과 중계협정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중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항공기→인마새트 위성→외국 육상지구국→한국으로 중계되던 방식이 앞으로는 항공기→인마새트위성→한국으로 바로 연결돼 이용요금이 전화(또는 팩스)의 경우 종전의 분당 9달러20센트에서 2-3달러 가량 인하된다.

한편 새털라이트 에어컴은 프랑스-캐나다-호주간에 구성된 연합체이며 이밖에 미국(컴새트)-일본(KDD)간 연합체도 있었으나 이 미.일 연합체는 스카이웨이의 등장으로 해체되고 KDD도 곧 스카이웨이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조난통신소 설치
8월 대전에 국내 처음으로

선박, 항공기 등의 대형조난사고때 조난신호를 받아 신속한 출동과 구조작업을 가능케 하는 '위성조난통신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8월 대전에 설치된다.

3월 6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소내에 설치될 이 위성조난통신소에서는 지난 88년 미.러.불.가 등 4개국간에 체결된 국제 코스 파스-살새트협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6개 위성에서 탐지된 조난신호를 받아 구조기관에 조난정보를 제공, 신속한 구조작업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성조난통신소에 설치될 통신 시스템은 지난해말 구매계약을 한 미 '테크노 사이언스(TSI)사'로 부터 공급될 예정이며, 오는 6월께 항공우주연구소내에 설치된 뒤 두달동안의 시험운용을 거쳐 8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 통신소의 설치계획은 지난 93년 7월과 10월에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 및 서해훼리 침몰사고 이후 신속한 조난구조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3월 해항청, 국방부, 과기처, 해경청등 9개 기관이 참여한 관계기관회의에서 결정돼 추진돼 왔다.

무궁화위성 보험 가입
삼1천6백억원 배상

한국통신은 7월과 12월 각각 발사예정인 무궁화위성 1,2호의

사고에 대비, 1천6백억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한국통신은 삼성화재, 럭키화재, 현대해상등 11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위성발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45억원의 보험료를 내기로 했다.

이 보험은 위성발사후 추진장치에 점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폭발, 궤도진입 실패 등 모든 이상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한국통신은 동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후 9년동안 1년단위로 궤도상에서 발생가능한 각종 위험에 대한 궤도보험계약도 체결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유인우주선 사업 합작 가능성 높아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안으로 양국 정부간에 유인우주선 발사 합작협정에 관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홍콩의 문회보가 3월 22일 타스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항공우주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와의 유인우주선 발사합작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오는 4월 러시아의 소스커비치 제1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실무차원에서의 논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오는 5월께 이붕총리의 러시아방문때나 또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옐친대통령의 중국방문시 이 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중국측에 유인우주선의 위험긴급구조계통과 온도조절계통 외에 다른 몇몇 부품들을 판매하는 댓가로 달러화지불을 바라고있으나 일부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으로 현물결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러시아는 유인우주선 개발이 평화적 목적에 제한되도록 생산기술의 제3국이전을 불허하는 부대협정등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2천년-2천2년사이에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이며 2천15년에는 우주정거장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우주협력에 새장 미, 러 위성우주도킹 예정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협력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고 있다.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TM 21호는 3월 14일 상오10시(이하 모스크바시간)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우주비행사 노만 타가드(51)와 러시아 우주비행사 블라디미르 데주로프, 겐나디 스트레칼로프등 3명을 태우고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와 도킹하기 위해 지구를 출발했다.

이 우주선은 3월16일 상오10시 56분에 미르와 도킹, 미우주인 타가드는 이곳에서 러시아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약 95일간 체류할 계획이다.

지구감시체제 구축 미, NASA주관으로

미국이 오는 2000년까지 모두 72억5천만달러가 들어가는 '지구감시체제'(EARTH OBSERVING SYSTEM)를 구축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미항공우주국(NASA) 등이 지난 3월 16일 미하원 과학위 항공우주소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EOS는 인공위성이 탐지하는 자료를 주축으로 한 지구감시데이타 정보체제(EARTH OBSERVING SYSTEM DATA &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전문 학자는 물론 정부관리로부터 환경 관계자들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모두 21만여명에게 지구변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NASA는 이를 위해 97년 인공위성들을 발사할 계획이며 지난 93년초부터 휴즈사를 통해 모두 9억3천만달러가 들어가는 EOS핵심 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EOS가 예정대로 97년께부터 시험 가동되기 시작하면 현재 미 의회 도서관에 소장돼있는 각종 자료들의 무려 1천배가 넘는 엄청난 정보가 모아져 지구 변화를 연구하는 전세계 학자 및 정부 당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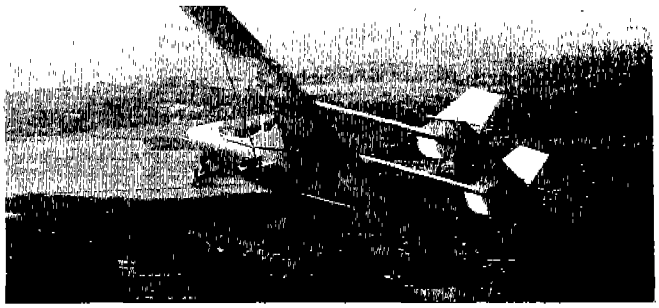
재사용 로켓 개발 추진
NASA, 향후 위성사업위해

미 항공우주국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우주 왕복선과 다른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재사용 가능 로켓트를 개발하기 위해 항공 산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우주를 개발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항공우주국은 우주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로켓을 항공우주국 밖에서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선 발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4개의 회사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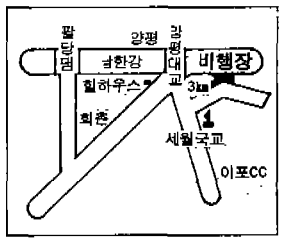
지난 3월 8일 항공우주국의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만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개인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재 사용 가능의 차세대 우주선이 개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근교에서 누구나 조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비·행·클·럽

비행교육안내

비행에 도전하십시오.
20시간이면 당신도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교관진 : 비행경력 20년 이상의 숙련 교관
■훈련기 : Rans 3대 (미국 Rans사)
Wizard 1대 (한국 동인산업 개발, 미국 수출중)
■후 원 : 사단법인 한국초경량항공기 협회
주식회사 동인산업
■비행장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 이포비행훈련장
(☎ 0337-84-7085)